[문제 1] <제시문1>-<제시문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의 유무'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25점)

문제1. 첫 번째 답안

제시문들은 모두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 조건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입장으로 갈린다.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있다고 보는 보편주의적 입장에는 <제시문 2, 4>가 있다. 그 반대편의 상대주의적 입장에는 <제시문 1, 3, 5>가 있다. 우선 보편주의적 입장에 선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성적 기능을 완성한 상태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같은 입장의 <제시문 4>에서는 행복이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적 행동의 신호로서, '쾌감'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주의적 입장의 다른 제시문들은 행복의 구체적 정의는 개인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제시문 1>의 칸트는 행복이 행복을 느끼는 주체의 감정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한다고 보았다. <제시문 3> 역시 행복은 주체의 의지에 달렸다며 주체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5>도 행복이 외부에서, 혹은 보편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온다며 상대성을 언급했다.

(507자)

★개요★

1.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있다고 보는 입장
2.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없다고 보는 입장

문제 1. 두 번째 답안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제시문들은 조건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크게 두 입장으로 갈린다.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있다고 보는 보편주의적 입장에는 <제시문 2, 4>가 있다. 그 반대편의 상대주의적 입장에는 <제시문 1, 3, 5>가 있다.

우선 보편주의적 입장에 선 제시문들은, 비록 그 구체적 내용은 상이하지만, 행복의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이성적 기능을 완성한 상태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시문 4>에서는 행복이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적 행동의 신호로서, '쾌감'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주의적 입장의 다른 제시문들은 행복의 구체적 정의는 개인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제시문 1>의 칸트는 행복이 행복을 느끼는 주체의 감정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한다고 보았다. <제시문 3> 역시 행복은 주체의 의지에 달렸다며 주체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5>도 행복이 외부에서, 혹은 보편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온다며 상대성을 언급했다.

(544자)

★개요★

1. 제시문 분류
2. 보편주의적 입장
3. 상대주의적 입장

문제 1. 세 번째 답안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편적이라고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상대주의적 입장이 있다. 보편적주의적 입장에서는 각기 행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표현하듯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이다. 이성적 기능을 완성한 상태여야만 행복이라 불릴 수 있다. 또한 행복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제시문 4>처럼 파악되기도 하는데, 이 때 행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적 행동의 신호로서, '쾌감'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상대주의적 입장에서는 행복에 대한 확정적 정의를 유보한다. 상대주의적 입장의 <제시문 1, 3, 5>가 모두 강조하듯, 행복의 구체적 정의는 개인에 달렸기 때문이다. <제시문 1>의 칸트는 행복이 주체의 감정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한다고 보았다. 이는 주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는 <제시문 3>과 맥을 같이 한다. 행복이 외부에서, 혹은 보편적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온다며 상대성을 언급한 <제시문 5>도 상대주의적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559자)

★개요★

1. 보편주의적 입장
2. 상대주의적 입장

문제 1. 네 번째 답안

제시문 1~5는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을 인정하는 보편주의적 입장과, 그렇지 않은 상대주의적 입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제시문 2에서의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느낌이나 태도가 아닌, 이성적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는 상태이다. 제시문 4 역시 행복이 생존과 번식의 확률을 높이는 생물학적 매커니즘에 입각한 쾌락의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 2,4는 이성이나 유전적 매커니즘과 같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간이면 누구나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조건이 존재한다는 입장에 입각해 있다.**

이에 반해 제시문 1,3,5의 경우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타당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적 입장에 입각해 있다. 제시문 1의 경우 행복은 개인의 쾌와 불쾌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감정에 의존하는 것으로 행복을 위한 보편타당한 법칙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제시문 3에 제시된 대화 역시 행복을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시문 5에 등장하는 사례 또한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가 아닌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렇듯, 제시문 1,3,5의 경우 행복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조건이 아닌, 개인마다 다른 경험이나 감정, 의지, 태도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703자)

★개요★

1.보편주의적 입장
-제시문 2 요약 : 이성적 기능의 완성
-제시문 4 요약 : 생존과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매커니즘에 따른 쾌의 감정
-두 입장 통합 요약
2. 상대주의적 입장
-제시문 1 요약 : 행복에 대한 보편타당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시문 3 요약 : 행복은 사람의 의지에 달렸다
-제시문 5 요약 : 행복은 객관적 조건이 아닌 이를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의 문제다
-세 입장 통합 요약

[문제 2] <자료1>은 일란성 쌍생아[1]와 이란성 쌍생아[2]를 대상으로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이다. 이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시사하는 바를 [문제 1]의 한 제시문과 연관 지어 서술하시오.(25점)

<자료 1>

구 분	관찰표본수	행복감 일치도[3]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생아 간의 관계	69	53%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생아 간의 관계	663	44%
동일한 환경에서 성장한 이란성 쌍생아 간의 관계	50	13%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이란성 쌍생아 간의 관계	715	8%

[1] 일란성 쌍생아(一卵性 雙生兒): 한 개의 수정란에서 태어난 쌍생아. 유전정보가 같기 때문에 동성(同性)이며, 체형·성질·지능이 매우 유사함.
[2] 이란성 쌍생아(二卵性 雙生兒): 두 개의 난자가 두 개의 정자에 의해 제각기 수정되어 유전정보가 다르게 태어난 쌍생아.
[3] 행복감 일치도는 쌍생아 간에 행복감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임.

문제 2. 첫 번째 답안

<자료 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육환경의 차이를 막론하고 일란성 쌍생아들의 행복감 일치도가 이란성 쌍생아들의 그것보다 높은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의 행복감 일치도는, 역시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이란성 쌍생아들의 일치도의 4배가량이다. 이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의 행복감 일치도를 비교해봤을 때에도 비슷하다. **즉,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변수 임을 알 수 있다.**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행복을 생물학적 진화의 맥락에서 설명한 <제시문 4>와 맥을 같이 한다. 쾌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긍정적 정서는 생존,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동을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 같은 유전적 메커니즘은 세대를 거듭하여 남게 되고,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될 수 있다.

(470자)

★개요★

1.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한 <자료 1>의 연구결과 해석
2.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으로서의 유전적 메커니즘 가능성 시사

문제 2. 두 번째 답안

<자료 1>의 연구결과를 통해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을 결정하는 중요변수임을 알 수 있다.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의 행복감 일치도는 53%이다. 여기에서 환경변수만 조정하였을 때 행복감 일치도는 44%로 소폭 하락하지만, 유전변수만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행복감일치도가 13%로 대폭 하락한다.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위같은 연구결과는, 행복을 생물학적 진화의 맥락에서 설명한 <제시문 4>와 맥을 같이 한다. <제시문 4>에 따르면, 쾌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긍정적 정서는 생존,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인간의 행동을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쾌감을 통해 생존을 추구하도록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유전적 메커니즘은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진다. 그렇기에 유전적 메커니즘은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될 수 있다.

(521자)

★개요★

1.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한 <자료 1>의 연구결과 해석
2.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으로서의 유전적 메커니즘 가능성 시사

문제 2. 세 번째 답안

<제시문 4>에 따르면, 행복, 즉 쾌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긍정적 정서는 생존,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행복은 인간의 행동을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행복을 통해 생존을 추구하도록 인간의 행동을 구성하는 유전적 메커니즘은 세대를 거듭하여 전해진다.

<자료 1>의 연구결과 역시 행복을 유전적 맥락에서 파악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의 행복감 일치도는 53%이다. 여기에서 환경변수만 조정하였을 때 행복감 일치도는 44%로 소폭 하락하지만, 유전변수만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행복감 일치도가 13%로 대폭 하락한다. 유전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생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 결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자료 1>의 연구결과와 행복을 생물학적 진화의 맥락에서 설명한 <제시문 4>는 맥을 같이 한다. 종합하여 보면, 유전적 메커니즘은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551자)

★개요★

1. <제시문 4> 내용 정리
2. 유전적 요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한 <자료 1>의 연구결과 해석
3.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으로서의 유전적 메커니즘 가능성 시사

문제 2. 네 번째 답안

<자료 1>을 보면, 유전적 조건이 똑같은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유전적 조건이 다른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행복감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에서 성장한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53%), 같은 조건의 이란성 쌍생아에 비해 행복감이 4배정도 높게 나타난다.(13%)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 역시, 일란성 쌍생아들이(44%) 이란성 쌍생아에(8%) 비해 행복감에 있어 **5.5배 정도의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로부터 우리는 유전적 조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제시문 4에서 보여지는 행복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제시문 4의 경우 행복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입각한 쾌락의 감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행복을 결정하는데 유전적 조건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자료1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460자)

★개요★

1. 자료 1 해석

-자료 1 근거

-자료 1로부터 도출되는 결론

2.시사점

-자료 1 결론과 제시문 4의 연결

[문제 3]

<자료2>가 보여주는 현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문제1]의 한 입장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25점)

<자료 2>

서울시 자치구	행복지수[1]	행복도[2]
자치구 A	86.4	6.6
자치구 B	68.3	3.9
자치구 C	66.4	4.9
자치구 D	63.2	5.5
자치구 E	57.9	1.0
자치구 F	49.1	6.7
자치구 G	48.5	5.9
자치구 H	39.3	6.9

[1] 행복지수는 소득, 교육, 건강, 환경, 안전, 여가 등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요인들을 통해 구성되었음. (가장 낮음: 0, 가장 높음: 100)

[2] 행복도는 각 자치구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행복감을 수치화한 것임.(가장 낮음: 0, 가장 높음: 10)

문제 3. 첫 번째 답안

<자료 2>를 통해, 행복지수에서 하위권에 있는 자치구 F, G, H의 행복도가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에 있는 자치구 A, B, C의 행복도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복지수에서 중위권인 자치구 D, E간에 행복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까지 고려하면, 행복지수와 행복도 간에는 반비례관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행복지수와 행복도는 무관한 것이다.**

행복지수는 보편적으로 행복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변수로 산출된 '객관적' 행복을 반영하고, 행복도는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을 반영한다. 객관적 행복과 주관적 행복간의 무상관성은 [문제 1]의 상대주의적 입장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주체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데에도 객관적 지표는 그 행복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보편적 행복의 조건이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행복은 주체의 주관적 정의를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454자)

★개요★

1. <자료 2>가 보여주는 현상
2. 상대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설명

문제 3. 두 번째 답안

<자료 2>를 통해, 행복지수와 행복도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행복지수에서 하위권에 있는 자치구 F, G, H의 행복도가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에 있는 자치구 A, B, C의 행복도보다 높고, 행복지수에서 중위권인 자치구 D, E간에 행복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렇다. 행복지수와 행복도 간에는 반비례관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결과는 [문제 1]의 상대주의적 행복의 입장에서 잘 설명할 수 있다. 행복지수는 보편적으로 행복에 기여한다고 여겨지는 변수로 산출된 '객관적' 행복을 반영하고, 행복도는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 행복을 반영한다. 행복이 객관적인 것이라면,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야 맞다. 그러나 행복지수가 높음에도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보편적 행복의 조건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복은 외부에서 정해진 보편적 조건보다는 주체의 주관적 정의를 통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

(499자)

★개요★

1. <자료 2>가 보여주는 현상
2. 상대주의적 입장에 근거한 설명

문제 3. 세 번째 답안

[문제 1]의 상대주의적 행복의 입장에서 행복은 어떠한 보편적 조건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행복에 기여한다고 알려진 조건이 모두 충족된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로, 그러한 조건이 없이 행복한 사람도 있다. 행복은 행복의 주체가 주관적으로 정의했을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잘 설명된다.

이러한 입장은 <자료 2>를 통해서 강화된다. <자료 2>에서는 '보편적'으로 정의된 행복지수와 '주관적'느낌을 반영한 행복도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행복지수에서 하위권에 있는 자치구 F, G, H의 행복도가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에 있는 자치구 A, B, C의 행복도보다 높고, 행복지수에서 중위권인 자치구 D, E간에 행복도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렇다. 행복지수와 행복도 간에는 반비례관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행복이 객관적인 것이라면,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은 행복감을 느껴야 맞다. 그러나 행복지수가 높음에도 행복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보편적 행복의 조건이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556자)

★개요★

1. 상대주의적 입장에 대한 설명
2. <자료2>의 해석을 통한 상대주의적 입장의 강화

문제 3. 네 번째 답안

<자료 2>는 행복지수가 높은 A, B, C 자치구의 행복도가 각각 6.6 3.9 4.9로, 행복지수가 낮은 자치구 F, G, H 의 행복도 6.7, 5.9, 6.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득, 여가, 교육과 같이 행복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을 나타내는 행복지수와 행복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나타내는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객관적 요건이, 주관적 행복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자료 2의 결론은, 행복지수가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타당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자료 2는 행복에 대한 상대주의적 입장에 입각해 설명될 수 있다. 상대주의적 태도는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는 개인의 감정, 의지, 삶에 대한 태도에 달렸다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437자)

★개요★

1. 자료 2가 보여주는 현상
-현상 기술
-이로부터 결론 : 행복지수와 행복감이 일치하지 않는다

2. 문제 1의 입장에 근거해 서술
-자료 2의 결론은 상대주의적 입장에 입각해 서술될 수 있다
-상대주의적 입장의 요약
-상대주의적 입장이 자료 2와 연결되는 이유

[문제 4]<보기>의 물음에 대해 [문제1]의 두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접속 여부)을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선택을 정당화 하시오.(25점)

<보기>

> 인간의 정서가 뇌의 화학적 균형, 신경전도물질의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는 학설이 있다. 이는 쾌감이나 행복감이 뇌와 몸의 여러 부위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전도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착안하여 어떤 발명가가 뇌의 부위에 전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개인이 원하는 행복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체험기계(experience machine)를 발명했다고 가정하자. 이 체험기계에 접속하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실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강렬한 쾌감이나 행복감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이 체험기계에 접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 4. 첫 번째 답안

<보기>에서는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행복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체험기계에 접속할 것인지 묻고 있는데, 행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지에 따라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 **우선, 행복에 대해 보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 행복에 대해 어떤 보편적 정의를 내렸는지에 따라 접속여부가 갈린다.**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높은 수준의 이성적 사고활동 실현을 행복으로 삼는 경우 이성적 사고없이 전기적 자극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기에 접속하지 않을 것이다. <제시문 4>의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을 취하는 경우, 행복이 생존에 유리한 감정, 즉 쾌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체험기계를 통해 쾌감을 얻을 수 있다면 접속을 선택할 것이다.

행복에 대해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체험기계에 접속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 자극으로 도달할 수 있는 행복감이 개인에게도 역시 행복감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전기적 자극을 쾌락으로 정의할 일부를 제외하면, 각자 자신의 정의에 따른 행복을 담보하지 못할 체험기계에 접속할 이유가 없다.

(592자)

★개요★

1.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지
2.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지

문제 4. 두 번째 답안

행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지에 따라 <보기>의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게 된다. <보기>에서는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행복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체험기계에 접속할 것인지 묻고 있다. 우선, 행복에 대해 보편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 그 구체적 정의에 따라 접속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나, 이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행복에 대해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적 보편주의를 취한다면, 이성적 사고없이 전기적 자극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기에 접속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제시문 4>의 생물학적 진화의 관점을 취하는 경우, 행복이 생존에 유리한 감정, 즉 쾌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체험기계를 통해 쾌감을 얻을 수 있다면 접속을 선택할 것이다.

행복에 대해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 행복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접속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답변을 내릴 수밖에 없다.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적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적 자극으로 도달할 수 있는 행복감을 행복으로 정의하는 개인은 체험기계에 접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것을 행복으로 정의할 수많은 개인은 자신의 정의에 따른 행복을 담보하지 못할 체험기계에 접속할 이유가 없다.

(641자)

★개요★

1.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지
2.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지

문제 4. 세 번째 답안

<보기>에서는 뇌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행복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체험기계에 접속할 것인지 묻고 있다. 양 입장에서 모두 행복기계에 접속하거나, 접속하지 않는 선택을 정당화가능하다.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행복기계에 접속하는 경우로는 생물학적 쾌락주의의 입장에서 행복을 정의한 <제시문 4>를 생각할 수 있다. 행복이 생존에 유리한 감정, 즉 쾌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체험기계를 통해 쾌감을 얻을 수 있다면 접속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접속하는 경우로는 전기적 자극을 통한 쾌감을 행복으로 정의하는 개인의 경우를 상상해볼 수 있다. 행복의 정의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기적 자극을 행복으로 삼는 개인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다.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행복기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로는 철학적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행복을 정의한 <제시문 2>가 있다. <제시문 2>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행복의 보편적 정의란 이성적 사고의 극치이므로, 이성적 사고없이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기에 접속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행복기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로는 전기적 자극 이외의 것을 행복으로 삼는 모든 사람이 있다. 전기적 자극 이외의 것을 행복으로 정의할 수많은 개인은 자신의 정의에 따른 행복을 담보하지 못할 체험기계에 접속할 이유가 없다.

(684자)

★개요★

1. 행복기계에 접속하는 경우
2. 행복기계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문제 4. 네 번째 답안

제시문 1,3,5와 같이 행복에 관한 상대주의적 입장에 입각한다면 체험기계에 접속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모든 인간이 동의할 수 있는 행복의 보편적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험기계의 경우, 뇌에 몇 가지 인위적 조작을 가한다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에 입각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체험기계에 접속하는 것은 행복을 결정하는 보편타당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대주의적 입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존재한다고 보는 보편주의적 입장에서는, 보편적 조건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체험기계에 접속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시문 4의 경우, 행복이 뇌의 생물학적 매커니즘에 따른 쾌의 감정이라는 입장으로 체험기계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에 체험기계에 접속할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2와 같이 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보편적 조건을 이성적 사고의 완성으로 본다면, 행복은 체험기계와 같이 뇌에 대한 물리적 조작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문 2의 입장에 입각한다면 체험기계에 접속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575자)

★개요★

1.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선택

-접속하지 않는다

-상대주의적 입장 요약

-왜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접속하지 않는지 근거 서술

2. 보편주의적 입장

-접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제시문 4 : 접속

-제시문 2: 접속하지 않는다